

감시되고, 추적되고, 표적 되기 이스라엘의 감시 정권 치하 가자지구에서의 삶

무함마드 알 므하위시,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 언론인

2025.12.3.

번역: 겸은새

원문: Watched, Tracked, and Targeted Life in Gaza under Israel's all-encompassing surveillance regime.

<https://nymag.com/intelligencer/article/watched-tracked-targeted-israel-surveillance-gaza.html>

2024년 4월 초 우리가 가자지구의 네차림 검문소에 도착하기 수일 전, 아내와 나는 우리를 간소히 설명하는 법을 연습했다. 이미 전쟁의 첫 육 개월을 겪었지만,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 될 것이었다. 언론인들이 살해당하고, 병원이 폭격당하고, 총탄이 아이들을 찢어발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우리의 목숨과 탈출 여부가 달려 있음을 학습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것이었다. 그러나 의심을 사지 않을 영역에 한정하여 입에 올릴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명령에 따라 이동 중인 피란민이라는 것을. 이 명령이란 공중에서 살포되는 익명의 전단을 타고 내려오거나, 자동으로 걸려 오는 익명 전화로 전해졌다. 남쪽으로 대피하라. 수개월의 폭격으로 가자 내 우리 주위가 참혹한 폐허가 된 후에 내려온 명령이었다. 아스마는 임신 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두 살배기 아들 라픽은 영양실조로 쇠약한 상황이라는 것. 우리가 언론인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남쪽으로 향하는 이 여정이 가자지구를 탈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은, 라파 통로를 통해 이집트로 진입하는 길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나는 답변을 거듭 연습했다. 단어들에 담긴 온도가 차갑게 식어갈 때까지. 단지 살아남고자 하는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폭격으로 얼룩진 길을 따라 지중해 인근을 지나갔다. 유모차 바퀴가 부서진 콘크리트에 굽혔다. 머리 위로 드론이 날아다녔다. 나의 하위야, 즉 이스라엘이 가자 시민 전용으로 발급하는 초록색 신분증은, 내 주머니에 있었다. 두 시간쯤 걸은 끝에, 우리는 네차림에 도착했다. 한때 가족들이 해변을 걷던 길은 이제 탱크, 방벽, 탐지기로 이루어진 군사 점유 통로가 되었다. 우리 앞으로 탱크 두 대가 지나갔고, 잔해 언덕 위로 저격수들이 서 있었다. 걸음을 옮길수록 줄지어 선 군사들이 더 선명히 보였다.

검문소에서, 군인들은 몰려오는 사람들을 다섯 단위로 끊었다. 나는 라픽이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한 군인이 우리를 카메라 하나 앞으로 걸어오라 했다. 유리 벽 뒤에서, 삼각대 위에 놓인 검은 구체. 붉은빛이 렌즈 아래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아스마가 우리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사이, 군인들은 카메라 뒤의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아스마와 라픽이 먼저 카메라 앞에 섰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숨을 참고 있었다. 그들이 엄지를 들어 보일 때까지. 군인들에게는 그것이 앞으로 가도 좋다는 수신호였다. 다른 이들은 옆으로 치워졌다.

수 초가 영원 같았다. “무함마드,” 그 군인이 드디어 말했다. 나는 바로는 반응하지 않았다. 내 이름은 흔하디흔한 이름이다. 그리고 그는 내 성을 말했다. 나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군인은, 얼굴은 복면으로 가리고 소총을 가슴팍 앞으로 가로지르게 들고 있던 자는, 나에게 앞으로 가까이 오라 손짓했다. 여기서 공포는 그들이 나에 대해 무언가 더 알아낼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데에 있었다. 내 신분증은 아직 내 주머니 안에 있었다. 연습으로 연마한 나는 그 순간 죽었다.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저 확인되었다.

2023년 10월 7일 기점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은, 가자지구를 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었다. 대규모 학살, 공동체 파괴, 거주지 파괴가 폭격과 총탄과 탱크로 이루어졌다. 그와 함께, 우리를 감시하고, 알아내고, 수집했다. 우리 머리 위로 끝없이 드론이 움직였고, 쿼드콥터는 창문 근처로 기울어 가까이 오거나 집 안으로 들어왔으며, 검문소에서는 얼굴을 스캔했다. 핸드폰을 추적해 동선을 파악하고, 노이즈만 들리는 전화가 걸려 온 직후 공습이 뒤따랐다. 이스라엘군은 인공 지능을 이용해 제거 대상 명단을 만들었고, SNS 계정들을 감시했으며, 우리의 전화 통화를 대거 녹취해 보관했다. 언론인, 인권 연구자, 그리고 법학자들이 모여 가자 전역에 있는 감시 기구 구조를 파악하고 기록하려 해왔다. 그중에 공백으로 남은 것은, 이러한 감시 기술이 사람의 신체에, 집에, 공동체에 어떻게 와닿는지였다. 이 구조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들의 날을 어떻게 조형하는지.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재배열했는지.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군이 “인공 지능을 이용해 공격 표적을 자동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공격이 금지된 대상을 표적으로 삼아왔”다는 주장들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언론인을 고의로 표적으로 삼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군 대변인 하나는 “이스라엘군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지 않고자 한다.”라고 했다.

나는 네차림에서의 상황 이틀 후 가자지구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지난 한 해, 나는 아직 가자지구에 있는 동료 둘의 도움으로, 이 정권의 쉽 없는 감시 아래 살고 있는 집수 명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 중에서 가자 시티의 병원장 중 하나였던 60세 마르완은, 처음에는 질문에 답변하기 자체를 거절했다. “대규모 학살 앞에서” 마르완은 말했다. “그들이 내 페 이스북 게시글을 볼 수 있다거나 내 집을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뭘 더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이들의 성은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감시에 대한 보고를 작성하는 중에 실명 전체를 언급하는 것은 억압자들에게 바쳐 올리는 것과 같으므로.)

그러나 마르완은 이 지속된 감시가 얼마나 그의 세계를 좁히고 뒤틀어왔는지 말하게 되었다. 끊임없이 말했다. 그는 이제 형제에게 전화를 거는 것도 피한다. 형제가 통화 중 “이 지역에서 발포된 포탄이 있는지, 이 지역에 이스라엘군이 들어왔는지”를 묻기라도 한다면, 보이지 않는 청자가 이를 곡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었다. 그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 자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말했다. 전화 한 번 걸 때마다 두려움이 가족들 사이로 스며들어왔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로 느껴지게 될 때까지.

칼레드는 알-아우다 병원 구급차 운전사로 거의 삼십 년을 일했다. 그는 심문 중에 한 경찰이 그가 가족에게 보낸 문자 기록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걸, 그들이 볼 수 있습니다.” 칼레드가 말했다. 문자 내용 자체는 일상적인 것이었다. 요는, 그가 느끼기엔, 자식이 일곱인 예순한 살의 아버지에게 그들이 어디까지 감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들 자신의 생각 자체를 꺼트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심문관과 감시자들이 그들의 머릿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정치적 성향이 없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전 그걸 죽여버렸습니다. 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

모두가 감시 경험에 대해 말했다. 메리는 26세 작가로, 가자 시티의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 이층집에서 자랐다. 가족들이 바닷가를 거닐고 거리에 상점들이 즐비하며, 탁 트인 학교 마당이 있는 곳이었다. 그 집은 전면이 흰색이었고, 유리창은 높았으며, 작은 발코니가 있었다. 아버지가 부지런히 돌보던 남양삼나무 여덟 그루가 입구에 그늘을 드리웠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행인들이 이 나무들을 보면 걸음을 늦추며 감탄하고는 했다. 올여름, 폭격이 지붕 일부를 부쉈다. 그리고 6월 27일, 새벽 네 시 삼십 분, 메리가 남은 방 중 하나에서 잠을 자는 중에, 메리는 자신의 바로 뒤에서 들리는 듯한 윙윙 소리에 눈을 떴다. “전 그대로 굳었어요.” 그가 말했다.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비명도 안 나왔어요.” 천장에 검은 사각형이 떠다녔다. 그는 명하니 이를 올려보았다. 그것은 방안을 떠돌아다니다 창문으로 나갔다. 제 침대 옆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수준이면, 그가 말했다. 사실상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로부터 수 주 뒤, 그의 35세 이웃이 무장한 드론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어 말리는 중이었다. 네 살배기 아들이 옆에 있었다. 메리는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전에 찾아오는 공포죠.”

가자지구에서 지난 두 해를 살아가는 것이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잊어가는 것이었다. 우리의 가족, 집, 거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잊는 것이기도 했다. 머릿속의 사적인 공간, 사람 간의 친밀함, 그리고 기계에 감시당하고 있다는 두려움 없이 생각하는 바를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자유. 10월 휴전 타결 수주전 팔레스타인 기반 사회 경제 진보 기구에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에 상시 감시당하고 있다고 믿는 가자 시민의 수는 전체 2/3에 육박했다. 기술이 불러오는 디스토피아적인 결과이다. 한 집단의 포위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그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들의 손에 미국 회사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이 넘겨진 결과이다. 이는 수십 년간 이루어진 감시 점령의 결과이며, 학살의 공포와 뒤얽힌 전제 점령 악몽이다. 무엇이 되었던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현재 진행형으로 진화하고 자라고 있다. 각지의 독재 정권들이 앞세우던 오랜 경고 ‘숨길 것이 없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가자지구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나의 아버지는 언제나 의심으로 가득하셨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별 해가 없다고 생각할 것들도 믿지 않았다. 이웃이 스마트 TV를 사도, 아버지는 따라 사시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를 감시할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는 거지 않으냐.” 우리가 가자 시티에서 전화를 걸면 먼저 긴 침묵을 두고 입을 열곤 하셨다.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사이 알아차려 보려는 듯. 그리고 의자는 창문을 향하지 않도록 돌리셨다. 그러한 두려움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일화들에서 비롯되었다. 나의 조부모께서는 1948년에 시온주의 부대의 손에 야파에서

추방되셨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던 때에. 그 뒤로 다시는 고향을 보지 못하셨다. UN 등록 카드와 배급 리스트가 난민으로서의 신분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들이 되었다. 나의 조모께서는 밀가루 배급을 받는 데에도 난민 파일에 미루어 확인받아야 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통제는 굵주림으로 먼저 도래했고, 그다음에는 서류로 찾아왔다.

“시온주의는 감시 정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NYU의 헬가 타월-수우리 교수는 팔레스타인의 기술과 정치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이 시작부터 영국의 식민주의 시스템과 오스만 제국의 시스템을 물려받았음을 말했다. 인구 통계, 거주지 공중 사진, 지도 기록, 중앙화된 방송 및 통화 수신망. 인구 통제 수단 다수가 1948년 이전에 이미 있던 것들이었다. 이스라엘은 이를 확장했을 뿐이었다. 개인 식별 번호, 재산 등록, 경찰 기록, 세납 명단, 거주지 철거. 모든 것들이 분류와 통제 수단으로 전락했다.

1980년대 초, 나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가금류 가공공장에서 일했다. 일일 허가서를 들고 아침마다 예레즈 검문소를 통과해 밤에는 동부 가자지구의 알-슈자이야로 돌아왔다. 검문검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들여다봤어. 종이 쪼가리까지도.” 그는 1980년대 후반 첫 인티파다 이후 감옥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간수들이 자신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지를 보고 놀랐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누가 서로 친구인지, 몇 시에 집에 가는지, 집에서는 어느 방에서 자는지까지 알고 있었다.

자율성을 약속한 순간들도 옥죄는 수단으로 돌아왔다. 1990년의 오슬로 협약은 팔레스타인 자치로 향하는 청사진으로 그려졌지만,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주파수와 통신을 통제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 팔레스타인 이동통신 네트워크, 통신 탑, 그리고 수입해 들어오는 라디오 기기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팔레스타인 회사들은 통신 기반 시설은 건설할 수 있었지만, 그 전파를 전하는 수단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 휴대 전화 하나쯤 넣어 다니기 시작하는 중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 연결 수단이 또 하나의 감시 수단으로 돌아왔다.

나는 두 번째 인티파다가 시작된 2000년에 태어났다. 내 유년기는 디지털 기술의 부상과 함께 흘러갔다.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자지구에서 “물려난다”고 했다. 군인들과 불법 정착민들이 이 지역을 떠났다. 그러나 점령은 단지 모양을 바꾸었을 뿐이었다. 이스라엘은 사람을 보내지 않아도 감시를 계속할 수 있었다. 연결될 수만 있다면. 타월-수우리 교수는 이를 “원격 조종 점령”이라고 했다. 카메라, 데이터베이스, 항공 촬영, 그리고 이스라엘 서버를 거치는 통신 네트워크. 이스라엘과 가자 사이의 국경은 가시 범위에서 벗어남과 함께 절대적인 것으로 변했다. 펜스 하나로 막히지 않고 우리의 스크린에서 스크린으로 흘러다녔다.

어린아이였을 때도, 나는 그것의 존재를 느꼈다. 우리 마을에 정기적으로 찾아오던 정전에서, 한 칸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가던 연결 상태 표시줄에서, 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며 “필요한 말 이상은 하지 말거라”고 우리에게 일러줄 때마다. 앗-슈자이야의 조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나는 동쪽 펜스 근처에서 동네 아이들과 공을 찼다. 펜스 넘어 평원에 서 있는 감시탑이 어김없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왔다. 우리는 종종 바람도 엿듣고 있을지 모른다며 농담하곤 했다.

이스라엘 감시 기술 대부분이 이 점령 지구에 먼저 시범 실행되었다. 2013년 버락 오바마가 라말라에 방문했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지원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팻말을 흔들었다. 그리고 여기 팔레스타인에는 3G가 없으니, 스마트폰은 가져오지 말라는 농담이 적힌 배너도 흔들었다. 서안지구는 그로부터 오 년 뒤에 3G를 받았는데, 가자지구에는 여전히 없다. 팔레스타인 디지털 권익 운동 단체인 소셜 미디어 진흥 아랍 기구(7amleh)에 따르면, 가자는 핸드폰 통신 기반 시설이 있음에도 통신망이 의도적으로 제한된 몇 안 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통신망 제한이 감시 구조의 일부라는 주장도 있다. 이스라엘 군인은 고속 통신망을 이용하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현지는 불안정한 2G에 의존 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예루살렘 출신 팔레스타인 디지털 권리 운동가 잘랄 아부카테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심 카드, 광섬유 통신선, 그리고 위성 통신망이 전부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 하나가 끊어지면, “팔레스타인 기술자들은 이스라엘 승인 없이는 이를 고치지도 못한다.”라고 했다.

내가 십 대가 되었을 무렵, 우리는 어느 지붕 안테나가 붉은빛으로 깜빡이는지, 어느 통로는 감시를 비껴가고 있는지를 궤고 있었다. 우리의 도시를 감시하는 드론과 감시 풍선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그리고 펜스 너머에서 움직이지 않는 별처럼 떠다녔다. 우리 가족이 신청하는 허가증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우리 가족의 성을 거주지 주소와 얼굴에 연결 지었다. 2019년, 팬데믹 한 해 전에, 이스라엘 정권은 이 허가증을 전산화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개시했다. 2020년 허가증 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약 오만 명에 달하는 얼리 엑세스 이용자들이 핸드폰 카메라, GPS 데이터, 기기 내 파일과 문자 열람을 허용해야 했다. 전쟁 발발 전 딱 한 번 업무상의 이유로 국외 여행을 나가보았는데, 이 2022년 여행에서 나는 이집트를 통해 아랍에미리트공화국에 갔다. 이스라엘을 통해 나간 이들은 자주 개인 소개서를 제출해야 했다 : 소속, 연고, 고용주, 전화번호 그리고 부모의 이름까지. 이러한 정보를 제출함은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우리의 삶을 더 속속들이 알려줌을 뜻했다. 일종의 거래였다. 노출을 대가로 한 이동성.

2020년 무렵, 가자는 이 땅에서 가장 많이 감시당하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를 서로 와, 그리고 바깥세상과 연결하는 수단들이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 인터넷은 지상군 작전이 있을 적마다 막통이 되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와 앱은 우리의 동선을 추적하는 지도가 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다. 심 카드를 바꿔치기하거나, 친구와 가족을 보러 갈 때는 휴대 전화를 집에 두고 나왔다. 검문소가 가까워지기 전에 사진을 지웠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지난 수년간 조용히 세워지고 있던 시스템이 본 위력을 드러냈다. 우리는 몇몇 서구 정부와 세계에서 가장 큰 테크 회사들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데에 일조했음을 알게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스라엘이 수백만 건의 팔레스타인 통화 내역을 유럽 데이터센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 달,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흐른 후에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후 이러한 서비스의 이스라엘 접근을 차단했다) 팔란티어는 뉴욕타임스 광고면에 ‘팔란티어는 이스라엘과 함께합니다’라는 광고를 실었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게 “군사 작전 지원과 관련하여” 기술 지원 계약을 맺었다. 이스라엘의 군사 정보 기관은 구글 포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 서비스를 이스라엘 개발사 코어사이트 에이 아이(Corsight AI)와 결합하여 군중에서 내지는 촬영된 영상에서 얼굴을 가려낼 수 있는 안면 인식 서비스를 구현해 냈다. 구글과 아마존은 이스라엘 정부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와 에이 아이 기술을 지원했으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의 계약에는 외국 재판부가 이 회사들에 이스라엘 정부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정부 관련 데이터 제출하도록 명령할 경우, 비밀리에 이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포함되었다. (구글 대변인은 구글 포토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로 “범용 안면 인식 기술을 상업적으로 배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변인은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고도로 민감한 정보, 기밀, 혹은 무기 및 정보전 등을 담은 군사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용도를 목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가 미국 개발사로서 미 정부, 나아가 여타 국가의 정부가 지시하는 적법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프레임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본 회사는 법적 명령에 관한 자사의 비밀 유지 책임을 우회할 만한 어떠한 프로세스도 구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항공 우주 산업체의 한 홍보 영상은 영국 회사인 RCV 엔진스가 제조한 엔진을 달고 있는 쿼드콥터를 담았다. (한 성명에서, RCV는 이스라엘 개발사에 “프로토타입 엔진”을 제공했을 뿐이며, “결코 이스라엘 군대에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한 항공 우주 분야 테크 회사인 탈레스(Thales)는 이스라엘의 감시 드론을 위한 전자 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술적 도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체 테크 회사들에 제공되는 서구 벤처 캐피털의 금전적인 지원에 따라, 코어사이트 에이아이나 셀브라이트(Cellebrite)와 같은 회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정부는 우리의 가장 끔찍한 공포조차 뛰어넘는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냈다. +972 매거진과 로컬 콜(Local Call)의 보도에 따르면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추측되는 위험도에 따라 분류했다. 분류 점수 한 점 차이로 사람의 생사가 갈릴 수 있었다. 정보기관 관련인들은 기자들에게 이러한 시스템 중 하나는 개인을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와의 연관성에 따라 점수를 매겼으며, 수만 명의 이름을 다루었다. 폭격 승인 명령은 빠르게는 30초 이내에 떨어질 수 있었다. 다른 프로그램은 건물을 유형과 수용 인원에 따라 분류하여 폭격 대상을 선정했다.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8200부대의 현역병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및 메타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예비군들의 협력으로 제작된 AI 도구들이 아랍어로 작성된 문자 메시지와 SNS 게시글을 분석했다. 그러한 분류 시스템이 무장 단체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시스템과 협력하면, 단지 이들과 인접한 곳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일가족이 멸절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은 고전적인 기술과 병행되었다. 정보원, 스파이를 기용하고 집과 사무실을 뒤졌다. 나는 군인들이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고 사진을 찍고 핸드폰을 수색한다는 무수한 일화를 접했다. 이는 전쟁 중에 자행된 더 광범위한 감시와 감금 의례의 일부였다. 이 감시의 기계체는 죽음의 기계체와 일체화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는 드론에 익숙해졌다. 이제 저공비행 쿼드콥터는 수류탄을 달고 날아다녔다. 이들은 보행 높이로 내려와 마당과 발코니를 맴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기 울음소리를 모사하는 드론도 있었다.

가자지구에서, 우리는 드론을 자나나, 즉 “윙윙거림”으로 불렸다. 2023년 10월 이후, 이는 우리 삶의 배경 음악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모델과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모델

을 소리만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자지구 거주민들은 이후 나에게 그들이 악명 높은 가자지구 인도주의 기구 배급소들을 피해 다녔다고 말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미 일어난 일처럼 총에 맞아 죽게 될지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군중을 지켜보는 그 카메라들이 그들의 얼굴을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인식시킬 수 있음을 두려워했다. 식량을 찾는 행위마저 그들을 노출할 수 있었다. (해당 배급소들은 11월에 운영이 종료되었다. 지난 7월 이러한 배급소의 보안 용역 두 사람이 익명을 요구한 취재에서 AP통신에 위 사항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임을 밝혔다) 기계 하나가 사람의 집안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존재를 등록하고, 위험 요소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감시 시스템이 없는 듯 무시하고 살아가고자 했다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었다.

36세 무함마드는 어린 딸 둘의 아버지이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NGO들의 소셜 미디어 및 디지털 마케팅 자문을 맡았다. 10월 7일 후, 무함마드는 그 자신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만드는 데에 깊은 공을 들였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요소가 감시하에 있음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시장에 갈 때 드는 장바구니도 투명한 것으로 들었다. “저는 가능한 투명한 가방만 사용하려 합니다. 배낭 같은 건 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바다가 내다보이는 그의 아파트에서, 무함마드는 밖에서 그를 지켜보는 드론을 피하고자 커튼을 쳐야 할지 말지를 놓고도 고민해야 했다. 그가 보기에, 안전은 그 어떤 것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전부 내놓는 데에 달려 있었다.

2024년 3월, 무함마드가 이 시점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앗-쉬파 병원이 바로 내다보이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부대는 그 병원을 포위했고, 탱크와 불도저를 진입시켰으며, 건물을 폭파하고, 구급차를 으스러트렸다. 생존자들은 환자들이 살해당했고, 직원들이 구금되었으며, 시설 자체가 기능을 잃었다고 증언했다. 깊은 밤중의 총성이 무함마드의 아파트 창문을 흔들었다. “우리는 오전 8시가 되도록 일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머리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팔레스타인인 남성이 들어왔다. 옷을 벗고 있었다. “저 앞에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옷을 벗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그럼 신분증은 지참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야 했다. 무함마드의 건물에서만 스물다섯 명의 남성이 밖으로 소환되었다. 날이 추웠고, 비가 내렸다. 여자와 아이들은 남쪽으로 걸으라 했다. 군인들은 남자들을 탱크 앞에 줄 세웠다. 나이 많은 남성들과 장애가 있는 남성들도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무함마드가 말했다. “그들은 어느 빛 쪽을 향하라고 했는데, 카메라가 있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명령은 확성기를 통해 들리는 유창한 아랍어로 하달되었다. “정지. 오른쪽을 향하라. 왼쪽. 카메라를 봐라.” 목소리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무함마드가 실수로 방향을 착각하자, “중학교도 못 나왔나 보군.”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열두 시간 내내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오후 8시. 그들이 거의 나신이 된 채 손목은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묶여 빗속에 서 있는 중에, 군인 하나가 몇 사람을 돌려보냈다. 무함마드는 지시를 반신반의하면서도 뒤돌아 걸었다. 걸어가다 등에 총알이라도 맞을 것 같았다. 무리를 떠나게 된 이들에게 군인들이 담요를 건넸다. 그는 하나 받아 들까 했지만, 거절했다. “내가 나를 덮어 가리면, 길 저편에 있는 군인들은 내가 이미 수색을 당했음을 몰라볼 수 있다.” 그는 생각했다고 했다. “그래서 전 알몸으로 걷기를 택했습니다. 제가 이미 수색을 당하고 풀려났음의 증거로.” 그는 내내 비가 쏟아지는

가자 시티를 한 시간 좀 넘게 걸었다. “걸어가는 중에 민가가 보였지만, 저는 어느 문도 감히 두드리지 못했고 추위로부터 저를 가릴 천 한 조각 찾을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집 하나에 도착할 때까지 걸었다. 거기서 그는 전화를 빌려 부인에게 전화할 수 있었다. 아내는 안전했다.

그날을 돌아볼 때, 무함마드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 숨길 것 없이 내보이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들이 우리의 얼굴을 스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됐다. 제일 앞줄에 서야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털어볼 테면 털어봐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반군이 아님을 그들도 알 테니, 그를 해하지도, 괴롭히지도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수개월 후, 무함마드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어느 비디오 영상에 대해 언질 받았다. 앗-쉬파 병원 앞을 헐벗은 차림으로 걷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담긴 영상이었다. 그도 그중 하나였다. “저는 어느 날 잠에서 깨어 사람들이 저를 태그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울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결국 그의 가시성은 그를 전혀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 상황에서 특히 해나가기 어려운 것을 하나 꼽자면,” 그가 말했다.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초 여성 하나는 전쟁 발발 전 미용실에서 일했다. 가자 북부에서 피신해 있던 중에 강제대피령에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구금당했다. 그는 두 기기 사이에 서서 자신의 이목구비를 기록 당했다. 그의 요약에 따르면 핸드폰 하나가 사진을 찍었고, 다른 스크린이 이를 정보로 처리했다. 그는 카메라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한 군인이 억지로 고개를 틀게 했다. 그리고 소총 개머리판이 그의 머리뼈를 강타했다.

그의 실명 전체가 즉시 조회되었다. 군인 하나가 그의 이름을 먼저 읊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가족의 성을 소리 내 읽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신분증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에게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저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한 경찰이 조회 결과를 보더니 그를 잡아가기로 했다. 한 우리에서, 군인들이 옷을 벗겼다. 속옷만 남겨두고. 눈을 가린 안대가 훌러내린 순간, 그는 자신의 신체를 향해 카메라를 향하는 군인 네트를 보았다. 그는 비명을 질렀고, 몸을 가리려 하면서 울었다. 그러자 가슴을 구타당했고, 안대가 다시 끌어올려졌다. 그들은 그를 “창녀”라고 부르며 작은 철장에 집어넣었다. 반항하면 맞을 것이라고 위협당했다. 핸드폰, 카메라, 시계 - 주위 모든 기기가 그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였다.

구금 수일 차, 그에 대한 파일을 들고 있는 경찰들이 있는 방으로 끌려들어 갔다. 심문은 포섭 권유로 시작했다. “미용실에서 일한다고? 이스라엘 신분증, 미국 여권, 월급도 주지.” 경찰 하나가 말했다. 그들은 그가 딸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넉넉히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심지어 몸을 정숙하게 가릴 수 있는 긴 질밥(Jilbab, جلباب)을 권하기도 했다. 이 것으로 몸을 가리고 정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잘 생각해 봐.” 그들이 말했다. 그는 거절했다. 그러자 폭행이 시작되었다. 머리, 가슴, 입. 응답 하나, 무응답 하나가 다음 구타를 불러왔다. “제 입과 코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할 때까지요.” 같은 제안이 다시 돌아왔다. 부역으로 부

지되는 생. 그는 버텼고, 구타는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다 질문이 다른 영역으로 튀기 시작했다. 잡아간 인질들은 어딨나? 네 사촌은 어딨고? 반군들은 지금 어디 숨어있지?

그는 철장과 철장을 오갔다고 회고했다. 스데 테이만 시설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데이몬 감옥을. 그는 네 차례 강간당했다. 월경 중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군인들은 냄새가 난다고 소리치며 그를 조롱했다. 그들은 그에게 십 대 딸이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그가 미용실에서 일했음을 알았다. 그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들은 우리에 대한 정보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구금 32일 차에 풀려났다.

전쟁이 시작되고부터, 나는 알자지라, The Nation, 그리고 +972 매거진과 같은 언론을 통해 가자지구에 대해 보도해 왔다. 2023년 10월 말 무렵, 내 핸드폰은 내가 작성한 기사를 인용하며 살해 협박을 하는 문자들로 가득했다. 이들 중 몇은 기계가 작성한 것 같았다. 내가 아는 거의 모든 기자가 그러한 협박을 받았다. 틀은 같고 내용만 다른 정도였다. 2023년 12월 첫 엿새간 나는 앗-쉬파 병원과 가자 시티의 앗-슈자이야 그리고 앗-다라즈 인근을 오갔다. 대피소가 된 학교에서, 때로는 병원에서 잠을 청했고, 기사의 끝에서 끝까지 전력을 다해 썼다. 통화는 짧게 하고 일을 할 때는 핸드폰 전원을 꺼두었다. 내가 어디에서 기사를 작성하는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12월 6일, 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집에 들렸다. 내가 걸어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아랍어로 말하며 자신을 데이비드로 소개했다. 이스라엘 군 소속이라고 했다. 그는 나를 하비비(아랍어로 “자기야/얘야” 정도의 뜻)로 부르며,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로 가득한 삼 층 건물을 대피시킬 시간이 이십 분 정도 있다고 했다. 나는 내 언론인 동료들을 포함한 다른 이들로부터 이러한 전화가 장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하나의 괴롭힘으로 다가왔다. 달리 갈 곳도 없는 우리들을 억지로 이동시키려는 수작일 수도 있었다. 우리는 머무르기를 택했다.

이튿날 오전 7시 30분, 나는 찻잔으로 손을 가져가며 내 아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도드닥거리 는 소리를 들었다. 굉음은 경고 없이 날아왔다. 집은 그대로 내려앉았다. 나는 천장이 쪼개지거나 벽이 무너지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저 갑작스러운 무게, 콘크리트와 쇠가 나를 납작하게 눌렀다. 내 두 팔이 붙박혔고, 두 다리가 갇혔고, 내 입과 폐로 먼지가 들어찼다. 내 아내와 아들을, 부모님을 불렀다. 처음에는, 돌아오는 답이 없었다. 그때 내가 닿을 수 있는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아들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이에게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리멍덩해졌다. 어딘가 위에서 돌들이 움직였다. 흐린 음성들. 나는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구조자들이 마침내 잔해를 깨고 들어왔을 때, 빛이 파고들어 왔다. 손들이 잔해를 긁어냈다. 그들은 내가 의식을 되찾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끄집어냈다. 그들은 내 아내와 아들을 꺼냈다.

네 사람이 죽었다. 사촌 둘과 이웃 둘. 이웃 하나는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집 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내가 내 집에 있음을 알았다. 아마도 내 핸드폰으로 나를 거기까지 추적했다. 시스템은 내 동선을 먼저 특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그 반경 내 모두를 이스라엘군 기준 감수할 만한 부차적 희생으로 집계했다. 그에 내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우

리는 앗-쉬파로 이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집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우리는 몸을 피했다. 이 주 후, 우리는 학교 대피소로 이동했고, 그다음부터는 가자 시티 내의 임시 대피소들을 계속 옮겨 다녔다. 그 시점 이후, 나는 내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전제로 움직였다. 나는 계속 기사를 발행했지만, 작업 본은 전부 지웠다. 연락처를 전부 날렸다. 동선을 변경했다. 그리고 장소 이름을 절대 소리 내어 말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게 해도 그들의 손바닥 안이었다. 석 달 후, 간이 대피소 하나에 있을 때, 전화가 다시 울렸다.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친 음성이 아랍어로 말했다. “불응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를 겁니다.”

우리는 모두 낙인찍혔고, 위협당했으며, 감시당했다. 내가 아는 모든 언론인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 가자에서의 경험은 감시가 어떻게 전쟁의 일환으로 스며들 수 있는지를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예가 되었다. 프레스 조끼를 입은 채로도 이스라엘군의 표적이 되어 살해당한 언론인들이 있었다. 현지 보도와 국제 언론에서 분명히 한 바이다. 2023년 10월 이후 ‘언론인을 지켜라’(Protect Journalist) 위원회(이하 CPJ:역주)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언론 및 미디어 종사자 최소 206명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손에 살해되었다. CPJ는 언론인 사망자 집계를 시작한 삼십 년 역사에서 2024년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기록했다. 이 중에서 이스라엘이 직접적인 요인이 된 것만 70%에 달한다.

이런 열악한 환경이면, 언론인들이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보도를 중단한다 해도 놀랍지 않을 일이었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전직 영어 교사로, 2023년 전쟁이 발발하고 불과 수개월 전에 언론계에 발을 들인 참이었다. 휴전이 타결되기 전 왓츠앱 통화에서, 그는 가자 시티의 활기찬 시내였던 알-리말이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방에 앉아 있었다.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고층 빌딩의 잔해 위로 줄 이은 피란민 텐트들뿐이었다. 드론 소음, 그 윙윙거림이 통화음에 섞여 들고 더 깊은 저음을 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얼굴이 굳고 턱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내내 시선을 창문에 고정했다.

2024년 1월, 그의 가족은 가자 시티 동부의 자이툰에서 도망쳐 도시 서쪽에 있는 친척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수중에는 E-SIM 카드가 있었다. 암전 중에는 이것이 유일한 통화 수단이었다. 그와 함께 지내던 다른 친척들은 그가 E-SIM으로 갈아 끼울 때마다 절대로 사진을 찍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신호를 조금이라도 수신하려면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건 저도 그들에게도 공포스러운 일이었죠.” 그는 실내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다. “상시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앗-쉬파에서 생중계를 송출하고 난 어느 날, 그는 모든 클라우드 백업과 업무 연락처를 삭제했다. 이러면 나중에 이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의 가족들이 정한 한계선이었다. 인근 폭격 후, 고모부가 그를 조용히 불렀다. “제발 저건 찍지 말렴.” 수 주 뒤 알-슈자이야에서, 그가 잔해를 향해 핸드폰을 들어 올렸을 때, 지나가던 노인이 속삭였다. “조심해. 아무것도 찍지 마.”

그는 취재 내용을 올리곤 하던 SNS 플랫폼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메타와 같은 테크 회사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언급을 억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라져야만 한다고 느끼게 되었다. 죽음과 파괴의 장면을 공유하는 이들이 표적이 됨을 알게 되었다. 8월에만 앗

-쉬파 인근 이스라엘 폭격으로 인해 언론인 여섯 명이 사망했다. 개중에는 내 동료였던 알자지라의 아나스 앗-샤리프와 무함마드 끄레이케도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아요.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언론인으로 일하기를 멈췄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제 가족을, 그리고 제 안전을 택했습니다.”

내 집이 폭격당하고, 나는 왓츠앱, SNS와 핸드폰으로 계속 협박당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다시 나를 표적으로 삼으려 함을 알았다. 우리는 적절한 금액을 내면 이집트를 통한 대피로가 열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외부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남쪽으로 향할 자금을 모았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2024년 4월 네차림 검문소에 서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간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 기분이 과연 어떨지 거듭 생각했다. 탱크도, 드론도, 전화기 너머 익명의 목소리도 아닌, 한 사람의 군인. 나는 그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보게 될지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사람 앞에 섰을 때, 나 또한 사람 하나로 읽힐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그 기계가 나를 특정했을 때, 군인들은 질문 하나 없이 나를 아스마와 라픽에게서 떼어놓았다.

군인 하나가 땅을 가리키며 내 핸드폰, 지갑, 열쇠를 내려놓으라 말없이 신호했다. 그리고 내 셔츠, 속옷, 바지, 속옷까지 벗으라 손짓했다. 라픽은 나에게로 걸어오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여린 목소리를 들었다. “아빠.” 아스마가 아이를 데리고 꺼지지 않으면 짜버리겠다는 협박이 들려왔다. 그들은 내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었고, 눈을 안대로 가린 뒤 어느 방으로 끌고 갔다.

투광 조명등이 머리 위에서 낮은 진동음을 냈다. 내 발바닥에 모래알이 날카롭게 밟혔다. 달궈진 자갈에 발이 익었다. 누군가 내 팔을 잡아 안으로 밀어 넣었다. 사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팔레스타인인 여자와 남자들이 청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들. 그 자신이 시스템이 규정한 대로가 아님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는 사람 특유의 애타는 어조. 군인들은 거의 아랍어를 구사했다. 미국 영어 몇 단어와 히브리어 약간이 그 뒤를 따랐다. 신속하게. 명령처럼 전달되었다. 나는 바닥으로 던져졌다. 두 손은 등 뒤로 묶였다. 군인 하나가 뒤에서 내 얼굴을 바닥에 쳐박았다. 그리고 나를 버려두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채로 한참이 흘렀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들어 올렸다. 한 손이 내 팔을 잡아끌고 얼마 되지 않아 군인들이 내 이마를 열기로 지글거리는 딱딱한 벽에 눌렀다. 내 귓가에 총이 찰깍하였다. 수 초 뒤, 그들은 나를 뒤돌려 세웠고, 눈을 가린 천이 벗겨졌다. 나는 빛을 향해 눈을 찌푸렸다.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내 앞에 완전 군장을 한 남자가 있었다. 헬멧은 베클을 느슨히 하고, 무릎 위에 노트와 핸드폰을 올려두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고 거짓말하는 이들 특유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무함마드, 좀 어렵니까? 우린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할 겁니다.” 그는 완벽한 아랍어로 말했다. 거의 내가 구사하는 수준에 가까웠다. 경계를 풀게 될 만큼. 나는 아랍어와 영어를 뒤섞어 대답했다. 코너에 몰린 것 같으면 영어로, 나 자신에게서 손을 놓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아야 하면 아랍어로.

그는 내 삶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의 학적, 일, 그리고 내가 기사를 작성한 장소들.

앗-쉬파, 알-아우다, 앗-다라즈. 이를 순서대로 읊었다. 그는 내 친척에 관해 물었다. 내가 망설이자, 그가 대신 내 사촌들의 이름을 읊었다. 내 가족들이 피신 중인 대피소가 있는 지역을 특정했다. 내가 답하든 얼버무리든 그의 노트는 이를 모두 기록했다. 심문은 수 시간 이어졌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던 그 시간 중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 심문관 눈앞에 있는 스크린에는 내 삶의 사본이 담겨있었다. 쉼 없는 감시, 수집한 전화 통화, 카메라, 그리고 위성 좌표로 쌓아 올린 판본이.

그리고 그는 내 아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라픽은 아직 잘 있습니까? 가슴은 좀 괜찮고?” 그 순간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건 내 집안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려진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나를 2022년으로 돌려보냈다. 라픽은 고작 산후 11달이었고,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 있었다. 라픽은 폐렴에 걸려 두바이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야 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아이는 괜찮았다. 하지만 여기에, 나는 글에서 다루지도 않았고 언론에 내보내지도 않은 내 삶의 내밀한 사항이, 나타났다. 심문관은 그걸 체크 박스 짚고 넘어가듯 입에 올렸다. 내 아들의 짧은 병원 신세에 대해 어딘가에서 들었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공화국 병원 기록에서? 내 통화 기록에서? 내 이메일 사본에서? 그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다.

심문은 더 강도를 높여갔다. 내가 이스라엘 공격에 일조했다는 주장을 부인하자, 한 군인이 내 목 뿌리를 소총으로 후려쳤다. “사실을 말해.” 그가 영어로 말했다. 심문관의 질문 하나하나가 시험처럼 날아왔다. 나는 평범한 답을 고수했다. 우리는 식량을 찾아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저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있을 뿐이었다고.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인용하면, 그들이 내 가족은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그리고 그는 내 집에 일어난 폭격을 언급했다. 그는 내 취재를 “선전광고”라고 했다. 내가 내 가족을 거의 죽일 뻔했다고 했다.

그는 두꺼운 태블릿을 집어 들었다. 나는 화면을 연뜻 볼 수 있었다. 아이콘 하나 없이 목록만 빼곡히 있는 스크롤 형 인터페이스가 보였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는 내가 누군가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아니면 그런 일에 협력한 사람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나를 부역자로 섭외하려 했다.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라픽이 이스라엘 안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아주 잠깐은, 그를 믿고 싶었다. 그 제안은 거의 다정하게까지 들렸다.

어딘가 근거리에서, 누군가 이름들을 소리치고 있었다. 다른 한 군인은 주황색 포장에서 과자를 꺼내먹고 있었다. 별다른 것 없는 또 하루의 일과인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며 천천히 씹어 먹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옷과 지갑을 내 발치에 던졌다. 내 돈은 아직 안에 있었다. 나를 총으로 친 군인은 나에게 차가운 물 한 병을 건네며 마시라고 했다. 나는 라마단에 맞춰 금식하고 있었지만 일단 마셨다. “차차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심문관이 말했다. “연락할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

나는 옷을 다시 주워 입고 눈이 멀 것 같은 조명에서 걸어 나왔다. 처음의 검은 카메라들이 둘러싼 곳으로 되돌아왔다. 아스마도 라픽도 보이지 않았다. 방벽 뒤에 탱크들이 서 있었다. 나는 계속 걸었다. 누군가 다시 불러세울 것을 예상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마침내 재회했을 때, 아스마는 검문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싶었지만, 남쪽으로 걷도록 강제되었다고 말했

다. 울면서, 우리의 두 살배기 아들이 매달려 안기는 중에. 그리고 이틀 후, 우리는 라파 통행로에 닿았다.

가자지구에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기록을 조회할 방법이 없다. 우리의 이름을 붉은색으로 만드는 파일을 우리는 볼 수 없다. 그곳에 있는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일상의 소음 속에서 경고를 듣는다. 갑자기 걸려 오는 국제 전화 연결음, 문 위에 나타난 렌즈. 그들은 공습이 잦아든 후에도 여전히 전화 통화를 길게 하지 않고, 암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게 되었다. 드론은 몇 시간이고 윙윙거리니 걸을 때는 청각에 의존해 길을 골랐다.

지난 이 년간 이스라엘이 수집한 정보는 새롭게 확장되는 아카이브의 새로운 밑바탕이 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계속 갱신되는 감시 리스트. 누가 누구에게 전화하고 누가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를 기록하는 살아있는 지도. “우리는 수십 년에 걸친 정보 수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권리 운동 단체 액세스 나우 (Access Now)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정책 총괄인 마르와 파타프타가 나에게 말했다. “그간의 이력을 보면, 이스라엘은 휴전이 타결되어도 당연히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감시 정권은 더 세를 불리고 더 침습적으로 변할 전망이다. 이 지배 점거 역사의 모든 단계가 그러해 왔듯.

가자지구의 미래가 미국과 그 동맹국의 손에 계획되는 중에, 이미 새로이 그려지는 감시 체계가 있다.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수 주간, 미국은 휴전 조항이 준수되고 있음을 감시하겠다는 명목으로 드론을 증설했다. 촬영된 영상은 미국 주도의 민간 군 협의체가 조회하며, 이 기구는 이스라엘 남부에 있다. 한편, 가자는 ‘노란선’이라는 것에 의해 두 쪽으로 나뉘어 있다. 이스라엘 관리하에 놓인 영역을 분리하는 표시로,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 주관하는 이스라엘 검문검색을 통과한 팔레스타인인들만이 이 “안전한” 구역이나 새롭게 지어질 주거 지구에 진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공습 표적을 정하던 기술이 이제 누가 집에 돌아와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을지를 정하는 기술로 탈바꿈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인간성이 으스러지고 난 뒤, 우리 가자 시민들에게 사생활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메리의 말이었다. 자다가 방에서 날아다니는 드론에 잠이 깬 작가. 그는 그들이 “말하자면 ‘의식의 소거’”를 살아가고 있음을 말했다. 팔레스타인 작가이자 구금되어 있던 알리드 다카를 인용한 것이었다. “우리는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자칫 우리를 해할 수 있을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됩니다.” 가자지구에서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다루는 심리학자 가디에르 엘-슈라파는 나에게 말하길, 휴전이 시작된 후에도 마음이 휴식을 취할 곳은 없다고 했다. “우리는 여전히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가능성도 있죠. 그들이 정말 멈출 작정이었다면, 우리 주위에 이 워드컵터들이 날아다니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전히 하늘에 있지 않을 테니까요.”

2024년 4월 가자지구에서 벗어난 뒤로도, 감시 시스템은 나를 뒤따라왔다. 나는 라파까지 이를 끌고 왔다. 내 가족들이 짐가방을 끌고 걸어 마침내 주위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회전문을 통과해 카이로행 버스를 타려고 하는 데까지. 그날, 한 이집트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도. 내 여권에 이집트 출입 승인 비자 도장이 찍히고서야, 나는 한 걸 숨을 놓을 수 있었다. 나는 생존했다. 하지만 사소한 버릇은 뒤따랐다. 나는 가자지구를 떠

나자마자 심 카드를 교체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도 않았다. 나는 근무처나 여느 다른 건물에 있는 카메라 위치를 확인해 두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핸드폰과 별개의 ‘깨끗한 기기’를 따로 두었다. 문이나 콘퍼런스 마이크 근처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줌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중에 노이즈가 들리면 바로 보이스를 음소거했다.

나는 내 아들에 대해 생각한다. 그 아이의 이미지도 이미 우리가 모두 죽은 후에도 잔존할 데 이터베이스에 담겨있을지 모른다. 나는 우리의 뒤를 밟는 기록을 조회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손으로 직접 기록을 남길 수는 있다. 그래서 나는 전부 적는다. 이름, 시간, 장소. 우리의 일부로 존재하는 흔적들. 그들의 것이 아닌 것들. 그 어떤 파일도 그 안에 담긴 이들이 스스로 쓰기를 멈추지 않는 한 완전해질 수 없다.